

말씀, 기도가 되다

시편 119 편과 함께하는 40 일간의 여름 들과 여정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1. 말씀은 읽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훑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묵상은 말씀을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비추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묵상은 그보다 먼저, 말씀이 내 삶을 비추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단지 해석해야 할 책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3.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알려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 제 삶을 이 말씀에 맞추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품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입니다.

4. 부르짖음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부르짖음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비추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됩니다.

8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이진교(2)	최상천(9)	조은영(16)	박래석(23) 한정임(30)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일 예배 2026년 7월 26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다 찬양하여라 / 찬송가 21(신) 21(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59 번(시편 136 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찬송가 90(신) 98(구)

기도 / 최명희 권사

성경 봉독 / 히브리서 12 장 14-17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주님을 보는 사람들 / 박화신 목사

찬송 / 십자가 그늘 아래 / 찬송가 415(신) 471(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히브리서 12:14-17 은 화평과 거룩을 서로 다른 덕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은 공동체 안에서 거룩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붙들고,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세워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화평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뿌리를 방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원망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또한 에서처럼 순간의 만족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세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3.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장차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뵈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화평을 이루고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7 월 27 일
Day 16 (월)

결박을 끊어내는 한밤 중의 찬양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61-64)

<개역개정>

61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엮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62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63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64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새번역>

61 악인들이 나를 줄로 엮어 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62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3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64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묵상

돈 문제, 꼬여버린 인간관계,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 등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밧줄에 꽂꽂 묶인 것처럼 무기력해집니다. 사방이
캄캄한 한밤중 같죠. 바로 그때가 영적 전쟁의 타이밍입니다. 시인은 몸이 묶인
한밤중에 도리어 일어나 '감사'를 선포합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찬양할 때, 나를 얹어매던 악한 결박의 줄들이 먼저 뚝뚝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초점

사방이 막히고 묶인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기를 멈추고,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감사를 선포하여 결박을 끊어내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수많은 염려와 악한 상황의 줄이 내 삶을 꽂꽂 묶어 숨통을 조여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이 깊은 밤중에 도리어 감사의
찬양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충만함을 믿사오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의 결박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2026 년 표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

왜 만나지 않고도 충분했을까!

눅 7:1-10

믿음은 기적을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1. 우리는 늘 눈앞의 증거를 구하지만,
백부장은 말씀의 우주적 권세를 믿었습니다.
군대의 명령 체계에서 상관의 한마디가 즉시
실행되듯, 만물의 주재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는 거리와 상관없이 질병과 어둠을
즉시 굴복시키며,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 있는 능력입니다.

2. 백부장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보다
주님의 명예를 먼저 배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앞세우기보다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참된 경외함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영적
지혜입니다.

3. 이 기적의 배후에는 신분과 민족의 장벽을
넘어 함께 믿음으로 서 있던 가버나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을
위해 간구했고, 백부장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편견을 넘어 말씀의 능력을 함께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만남이나 감동을 넘어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와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7 월 29 일
Day 18 (수)

세상의 거짓을 이기는 목직한 중심

오늘의 말씀 (시편 119:69-72)

<개역개정>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70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새번역>

69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70 그들의 마음은 무더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71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72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묵상

세상에서 평평거리며 사는 악인들을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로 남을 짓밟곤 합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기름 비계 덩어리처럼 썩어가는 상태죠. 반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다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천천 금은보다 귀한 영원한 말씀의 비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역설의 노래입니다.

기도의 초점

세상 악인들의 형통함이나 날조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단단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을 취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불의함과 나를 향한 모함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선포합니다! 이 터널을 지나며 수천수만의 금은 보화보다 귀한 주의 법을 배우게 하소서, 둔감한 세상의 풍요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참된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7 월 30 일
Day 19 (목)

나를 빛으신 손길을 신뢰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73-76)

<개역개정>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74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76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새번역>

73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충명도 주십시오.74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75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76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묵상

토기장이가 진흙을 꺾꾹 누르고 깎아내며 도자기를 만들 때, 진흙의 입장에서 그 손길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망가뜨리려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토기장이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 빚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실 때 때로 괴로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기도의 초점

내 삶의 깎아지르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을 신뢰하며, 약속하신 인자한 위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나를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 내 삶에 허락하신 괴로움과 징계조차도 나를 향한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의로운 손길을 신뢰하오니, 낙심한 내 심령 위에 약속하신 한결같은 사랑과 위로를 이 시간 부어주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7월 31일

Day 20 (금)

수치를 반전시키는 정결함의 힘

오늘의 말씀 (시편 119:77-80)

<개역개정>

77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78 교만한 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울조리리이다
79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80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새번역>

77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78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79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80 내 마음으로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묵상

금요일, 한 주간 세상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다 보면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거나 영적
페이스를 잃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조롱 섞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죠. 이
수치를 반전시키는 비결은 똑같이 앙갚음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 없고 완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정결하게 서 있으면,
나를 넘어뜨리려던 악한 세력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무릎 꿇게 됩니다.

기도의 초점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말씀의
정결함을 채워 모든 수치를 승리로 반전시키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억울함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사 흠 없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나를 거꾸러뜨리려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떠나가는 반전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7월 28일

Day 17 (화)

고난이라는 굳은 살이 주는 유익

오늘의 말씀 (시편 119:65-68)

<개역개정>

65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6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새번역>

65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하
주셨습니다.
66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67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68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묵상

우리는 가급적 고난 없는 탄탄대로를 걷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잘
나가기만 하는 인생은 나도 모르게 오만해져서 궤도를 이탈하기 십상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이 찾아와 세차게 때려준 덕분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궤도로
돌아왔다고 말하죠. 힘든 역경은 아프지만, 우리 영혼에 불순물을 빼고 올바른
'판단력'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가장 뼈아픈 축복의 도구입니다.

기도의 초점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단순히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이를 통해 내 삶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찾아온 고난 앞에서 입술로 '원망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나를 선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 내 안의 교만과 그릇된 행실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단단한 영적 야성을 갖게 하옵소서!